

吳漁山の『三餘集』에 나타난 天學詩 研究*

최낙민**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오어산 신부와 江南傳教
 - 1) 上海 敬一堂의 보좌신부
 - 2) 嘉定 東堂의 본당신부
3. 『三餘集』의 天學詩
 - 1) 修道詩
 - 2) 司牧詩
 - 3) 教導詩
4. 나오는 말

【초록】

청나라 초기 산수화단을 대표하던 “淸初六家”의 한사람인 吳漁山은 康熙 27년(1688) 8월 1일 사제품에 오른 후 선종 때까지 약 30년간 江南地域 선교사업에 종사하였다. 그의 선교활동은 크게 上海에서 보좌신부로서 생활하던 시기와 嘉定에서 본당신부로 활동 하던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三餘集』은 오어산 신부가 강남지역에서 修道生活, 司牧生活, 教導生活을 하는 여가에 지은 광의의 天學詩들을 수록한 것이다.

陳垣 선생은 오어산 신부의 선교 생애를 ‘窮’과 ‘忙’으로 개괄하였는데, 연구자는 여기에 ‘愁’를 더하여 오어산 신부의 삶과 고민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三餘集』에 수록된 시를 통해 보면 오어산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라틴어와 교리에 대한 학습 의지를 접지 않았고, 목자로서 사목에 대한 열의를 불태우며 바쁜 나날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역사 속의 영웅과 고사들을 인용하여 기독교 교리를 알리고자 하였다. 본문에서는 오어산 신부가 『三餘集』에 남긴 천학시들을 修道詩, 司牧詩, 教導詩로 나누고, 이상의 내용들을 담아내고자 하였다.

【키워드】 吳漁山, 嘉定, 上海, 修道詩, 司牧詩, 教導詩, 天學詩.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019375)

**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재연구소 HK교수 (qiushui@kmou.ac.kr)

1. 들어가는 말

上海城 南門 밖에 위치한 聖墓堂에는 康熙 57年(1718) 예수회 上海住院會長 멘데스 신부(Manuel Mendes, 孟由義)가 세운 “天學修士漁山吳公之墓”라 적힌 墓碑가 남아 있었다. 묘비에는 작은 글씨로 公 諱歷이고, 聖名은 시몬(Simon Xavier, 西滿 沙勿略)이며, 常熟縣 사람이다. 康熙 21년 예수회에 입회, 27년 사제가 되어 嘉定과 上海에서 行教했고, 57년 성 마티아 축일(Matthias, 瑪弟亞瞻禮日) 상해에서 병으로 선종, 향년 87세라고 적혀 있었다.¹⁾

청나라 초기 산수화단을 대표하던 “淸初六家”²⁾의 한사람인 吳漁山(1632-1718)은 강희 21년(1682) 知天命의 나이로 마카오를 찾아 예수회에 입회하고, 27년(1688) 8월 1일 南京教區長 羅文藻(Gregorio Lopez) 주교가 주례하고 교구 사제단 공동 집전으로 봉헌된 서품식에서 성품성사를 통해 사제품에 올랐다. 세례를 통해 세속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태어난 오어산 신부의 교명은 시몬 하비에르였다. 열심당 출신으로 12사도의 한 사람인 시몬(Simon)³⁾과 예수회 동방선교의 개척자로 선교자의 수호성인이 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Francis Xavier)⁴⁾는 모두 기독교 해외 선교에 있어 혁혁한 공을 세운 성인이었다. 오어산이 이 이름을 선택한 것은 중국에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주교의 성실한 협력자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천주의 양들을 돌보는 사제 직무를 끊임없이 수행 하겠다는 서약을 한 오어산은 萬其淵(Paul Vanhes), 劉蘊德(Blaise Verbiest) 두 중국인 사제와 함께 상해본당에 파견되어 파스테리(Antonie Posateri, 張安當) 신부의 업무를 돕는 보좌신부로서 사제 직무를 시작했다. 오어산 신부는 『三餘集』에 수록된 여러 편의 시를 통해 상해에서 활동한 기간을 “十年海上”이라 표현하였는데,⁵⁾ 대략 강희 25년(1886) 봄에서 34년(1695)년 사이로 추정된다.⁶⁾ 이후, 상해를 떠나 가정 東堂의 본당신부가 된 오어산은 강희 30년부터 47년까지(1691-1708) 가정에 상주하였다.⁷⁾ 상해와 가정에서의 활동이 서로 겹치

1) 吳漁山 신부의 보다 자세한 생평은 줄고, 「吳漁山의 죽음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고찰」, 『해항 도시문화교섭학』, 제14호, 2016.04 참고.

2) “淸初六家”란 명대 董其昌의 뒤를 이어 청나라 초기 산수화단을 영도했던 王時敏, 王鑒, 王惲, 王原祁, 吳歷, 惲壽平을 말한다.

3) 『三巴集·聖學詩』, 「讚宗徒聖西滿」: “日多創業是何人, 被化名邦教澤新. 勳績不慚大主弟, 尊榮共羨母皇親. 途逢季子功同顯, 語壓邪徒道始眞. 獨憶風雷乍震日, 天衢穩步樂無垠.” 본문에서 인용한 오어산의 작품은 章文欽 箋注, 『吳漁山集箋注』(中華書局, 2007)를 저본으로 하였다. 아래에서는 서지사항을 생략한다.

4) 『三巴集·聖學詩』, 「聖方濟各·沙勿略」: “辭樂逐艱, 就貧棄富. 神注中華, 鐸開印度. 流厚澤於殊方, 揚聖名於一亘古. 讚曰: 特選之器, 聖教柱礎. 隨救世主, 擔荷極苦. 聖父光榮, 聖神特寵. 私累胥損, 五司鞏固. 重顧群羊, 一如聖祖. 廣布福音, 豈曰小補. 指破迷途, 宛然巨火. 振醒吾民, 咸思安土. 非止本會之棟梁, 實乃亞西亞之慈父.”

5) 『三餘集』, 「自鳴鐘聲」: “兩鬢荒荒雪漸盈, 十年無計出愁城.”; 「十年海上」: “十年勞未倦, 忘却鬢霜凋.”; 「可歎」: “予今村鐸爲誰鳴, 十年躑躅無倦行.”; 「歎庭樹」: “堪歎此間多雨雪, 十年猶未翠成陰.”

6) 章文欽, 『吳漁山及華化天學』, 中華書局, 2008, p.141.

7) 章文欽, 『吳漁山及華化天學』, 위의 책, p.148.

는 시간들에 대해 方豪 신부는 “十年海上”, 즉 상해에서 10년 동안 선교활동을 했다는 말은 오어산 신부가 상해를 근거지로 하여 때론 가정과 常熟, 蘇州 등을 오가시며 활동하셨다고 보아야한다고 했다.⁸⁾ 그리고 멘데스 신부가 묘비에 “行教嘉定上海”라 적은 것은 오어산 신부의 선교 생애에 있어 가정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 할 것이다.

上海 徐家匯藏書樓에는 民國 초기 徐宗德이 초록한 『三餘集』抄本 一冊이 있었다.⁹⁾ 陳垣 선생은 『三餘集』은 『桃溪』, 『寫憂』, 『從遊』에 수록되지 않은 나머지 시들로, 오어산 신부가 이름 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하였다.¹⁰⁾ 세 가지 경우의 餘暇란 뜻의 ‘三餘’란, “한 해의 여가인 겨울과 하루의 여가인 밤, 그리고 時의 여가인 비 오는 때”¹¹⁾로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때를 말한다. 『三餘集』에 수록된 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오어산 신부가 강남지역에서 修道生活, 司牧生活, 教導生活을 하는 여가에 지은 시들을 수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天學詩’란 말은 가정에서 주석하시던 오어산 신부가 강희 36년(1697) 그의 신도 趙倫과의 대화중에 “천학시를 짓는 것이 제일 어렵네, 다른 시와는 비교할 수 없다네(作天學詩最難, 比不得他詩)”¹²⁾라고 처음 사용하였다고 한다. 이때 오어산 신부가 말한 천학시는 천주교의 교리와 전례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시로 협의의 천학시라 부를 수 있다. 이에 반해, 천주교와 관련한 인사들이 중국 고전시가의 형식을 빌려 서양의 기독교와 그 문화를 표현한 시를 광의의 천학시라 부를 수 있다.¹³⁾ 천학시는 중국 고대 문인들의 神學(기독교)에 대한 연구와 토론을 담고 있는 귀중한 성과물이지만, 언제나 사람들에게 등한시 되어왔다. 옛 사람들의 기독교 교의에 대한 탐구는 역사적인 제한으로 인해 이해가 얕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천학시는 중국 고대문인의 사고에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중국문화를 바탕으로 하였다는 점은 오늘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¹⁴⁾

진원 선생은 오어산 신부의 선교 생애를 두 글자로 개괄하였는데, 그것은 ‘窮’과 ‘忙’이었다.¹⁵⁾ 연구자는 여기에 ‘愁’를 더하여 오어산 신부가 『三餘集』에 남긴 광의의 천학시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三餘集』에 수록된 시를 통해 오어산 신부가 상해에서 보좌신부로 재임하던 시기 느꼈던 ‘愁’, 가정에서 본당신부로 활동하면서 느꼈던 ‘窮’의 내용을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三餘集』에 수록된 90여 수의 시를 修道詩, 司牧詩, 教導詩시로 나누어 라틴어와 교리 학습에 대한 의지, 목자로서 사목에 대한 열의, 중국 역사속의 인물들을 인용하여 기독교 교리를 설명하고자 한 오어산 신부의 노력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8) 方豪, 『中國天主教人物傳』, 光啟社, 2003, p.383.

9) 民國 초기 徐宗德이 초록한 것으로 뒤에 종덕의 동생 徐宗鐸 신부가 『聖教雜誌』제 26권 제8기(1937년 8월)에 발표하였다.

10) 陳垣, 『『墨井集』源流考』, 周康燮 主編, 『吳漁山(歷)研究論集』, 崇文書店, 1971, p.56.

11) 『三國志·魏書·王肅傳』: “董遇等亦歷注經傳, 頗傳於世. 《注》引《魏略》: (董)遇言: 冬者歲之餘, 夜者日之餘, 陰雨者時之餘也.”

12) 章文欽 箋注, 『吳漁山集箋注』, 趙倫, 『續口鐸日抄』.

13) 천학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줄고, 『吳漁山의 『三巴集』에 나타난 天學詩研究』, 『中國學』, 第54輯, 2016.03 참고.

14) 徐曉鴻, 『吳歷及其“天學詩”』, 『天風』, 2010, p.56.

15) 陳垣, 『吳漁山先生年譜』, 『吳漁山(歷)研究論集』, 위의 책, “可以二字括之, 曰窮與忙而已.”

2. 오어산 신부와 江南傳教

사제 서품을 받은 오어산 신부는 이후 善終때까지 약 30년간 강남지역 선교사업에 종사하였다. 그의 선교활동은 크게 상해에서 보좌신부로서 생활하던 시기와 가정에서 본당신부로 활동 하던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¹⁶⁾ 본 장에서는 오어산이 중국인 보좌신부로서 느꼈던 ‘愁’와 가정 본당신부로서 생활하며 경험했던 ‘窮’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上海 敬一堂의 보좌신부

로마 교황청이 임명한 첫 번째 중국인 주교 나문조는 1688년 오어산과 만기연, 유온덕에게 안수와 함께 예수회 사제 서품을 내렸다. 이때, 서양인 신부들 중 일부는 기쁜 마음으로 세 사람을 받아 들였지만, 일부 신부들은 그들이 너무 일찍 사제 서품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를 막고자 하였다. 비판자들은 새로운 중국인 신부들을 몹시 경계하고, 그들의 행위에서 자신들의 의심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찾고자 하였다.¹⁷⁾ 일부 비판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중국인 신부들이 서양의 수사들과 같은 체계적인 성직자 교육과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교리에 대한 소양이 부족하고, 라틴어로 미사와 성사를 집행할 능력이 부족하며, 예수회의 엄격한 계율을 지킬 수 있을지 의심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서양인 사제로 이루어진 예수회의 응집력을 흐트러뜨리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였다.¹⁸⁾

오어산 신부는 교회 내의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해에 부임한 후에도 중국인 신부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 트집을 잡고자 하는 서양 신부들의 의심을 털어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그러나 오어산 신부는 라틴어로 미사를 거행하고, 성사를 집행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공부하고, 교리와 철학을 학습했지만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 마카오에서 예수회에 입회한 이후 그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가장 큰 근심은 라틴어를 비롯한 학업이었다.

六十來周促,	곧 환갑이 다가 오지만,
二毛久已侵.	머리가 희끗희끗 한지는 이미 오래라네.
窮愁甘至骨,	궁핍과 근심이 뼈 속까지 미치지만,
冷暖不移心.	인정의 후함과 박함 때문에 마음을 바꾸진 않으려네.
志欲申無力,	뜻을 펼치려 하나 힘이 없고,
詩因和費吟.	시에 화답하려하나 쓸데없이 신음만 하네.

216) 오어산 신부의 상해에서의 활동은 줄고, 『예수회 신부 吳漁山の ‘十年海上’ 사목활동과 天學詩 고찰 - “글로벌-로컬”의 관점을 중심으로』, 『中國學』, 第59輯, 2017 참고.

17) 栢里安(Liam Mathew Brockey), 陳玉芳 譯, 『東遊記(Journey to the East): 耶穌會在華傳教史, 1579-1724』, 澳門大學, 2014, p.109.

18) 栢里安(Liam Mathew Brockey), 陳玉芳 譯, 『東遊記(Journey to the East): 耶穌會在華傳教史, 1579-1724』, 위의 책, pp.102-108.

未能忘世務, 살아가며 겪게 되는 온갖 일들을 잊을 수 없어,
捫風話陸沈. 이를 문지르며 세상사의 승쇠를 말하네.¹⁹⁾

진원은 『三餘集』에 실린 이 「次韻雜詩」는 오어산 신부가 상해에 부임한 후인 강희 29년(1690)년에 완성한 것이라고 하였다.²⁰⁾ 아직 환갑이 되지 않았지만 머리는 이미 하얗게 쇠 버렸고, “몸은 쇠하여 대나무처럼 여위었다”²¹⁾는 말을 통해 오어산 보좌신부가 상해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음을 엿볼 수 있다.

兩鬢荒荒雪漸盈, 두 귀밑머리는 흰빈하고 흰머리 점차 늘어나지만,
十年無計出愁城. 십년동안 이 근심의 성을 떠날 계획은 없었다네.
鐘聲不管愁難度, 자명종소리는 건디기 힘든 근심도 상관 않고,
日夕廻環只自鳴. 밤낮으로 돌고 돌며 절로 울리네.²²⁾

상해에서 보좌신부로 보낸 10년 동안 어떤 궁핍과 근심이 그의 뼈 속까지 사무쳤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오어산 신부는 세상의 인정, 서양 선교사의 질시 때문에 사제가 된 자신을 뜻을 바꾸지 않고자 하였다. 하지만 그는 중국의 교화를 위해 노력하고, 중국과 외국이 모두 천주의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 자신의 큰 뜻을 펼치기 위해 주변 상황을 바꾸기에는 능력이 부족함을 통감하고 있었다.²³⁾ 하지만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쳐 인간을 죄악에서 구원하고자 한 그리스도의 큰 은혜를 결코 잊지 않았고, 중국의 교화를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도 결코 꺾지 않았다.

漫說酒能解, 술이 근심을 풀어줄 수 있다 말하지 말라,
愁人飲復愁. 근심에 쌓인 사람은 마실수록 근심이 더하는 것을.
舊翻心內火, 묵은 근심이 꿈틀되면 마음속에서는 화가 치솟고,
新作鬢邊秋. 새로 생긴 근심에 귀밑털은 백발이 되었구나.
風雨燈殘促, 비바람이 꺼질락 말락 하는 등불을 다그칠 때,
關河歲晚稠. 변경의 산하는 세밑이라 동요하네.
樽前無避地, 술 단지 앞에서는 피할 여지가 없으니,
何處豁眉頭. 어느 곳에서랴 미간을 활짝 펼 수 있을까?²⁴⁾

오어산 신부가 술의 힘을 빌어서라도 풀고자 했던 묵은 근심은 무엇이고, 새로 생겨난 근심은 무엇이었을까? 오어산은 쿠플레 신부와 함께 로마 바티칸으로 가고자 했다. 하지만 그의 꿈은 마카오 현지의 종교지도자들에 의해 좌절되었다. 부득의하게 마카오에서 예수회 수사의 길을 가기로 결정한 오어산은 기독교의 동방선교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하비에르의 무

19) 『三餘集』, 「次韻雜詩七首」第四首.

20) 陳垣, 「吳漁山先生年譜」, 『吳漁山(歷)研究論集』, 위의 책, p.17.

21) 『三餘集』, 「次韻雜詩七首」第一首: “塵世日多感, 此心觸不驚. 病身如瘦竹, 道侶類飄萍. 畏俗逐高下, 避人稱重輕. 棲遲擬深處, 何必買山耕.”

22) 『三餘集』, 「自鳴鐘聲」.

23) 『三巴集·聖學詩』, 「自述」: “數載居諸空自勞, 何時夷夏被恩膏. 願君默禱常恩憶, 不負傳宣委任高.”

24) 『三餘集』, 「愁」.

덤이 남아있던 上川島를 방문하고 당시 마카오 교회에 대해 가졌던 불편한 심경을 토로하였다.

聖會光埋利藪中,	예수회의 세력이 잇구멍 가운데 매몰되니,
可憐前聖創基功.	앞선 성인 마련하신 기틀이 안타깝네.
三洲舊穴今猶在,	三洲島의 옛 무덤은 지금도 남아있어,
望裏悲天午夜風.	그 속을 바라보며 세태를 한탄할 때 밤바람이 일어나네. ²⁵⁾

시신은 이미 필리핀으로 옮겨가고, 파헤쳐진 채 남아 있는 하비에르 성인의 무덤 터를 보면서 오어산은 마카오의 예수회가 이곳이 생길만한 일거리나 기회를 찾는데 매몰되었고, 하비에르 성인이 세운 선교의 기틀이 무너져 가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당시 마카오에서는 동방 선교에 관한 호교권을 가진 포르투갈, 정치권력에서 벗어나 교회의 선교활동에 관한 모든 일을 관장하고자 한 로마 교황청, 프랑스국왕의 적극적인 후원을 배경으로 새롭게 등장한 프랑스 외방선교회 간의 갈등들이 펼쳐지고 있었다. 또한, 마테오 리치의 선교방침을 따르는 예수회의 적응주의 선교정책에 반대하는 여러 수도회 간의 갈등이 상존하고 있었다. 오어산은 당시 교회의 분열과 갈등을 근심하고,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교회 내부의 갈등과 분란은 오어산이 상해에 부임한 이후에도 여전하였다. 당시 강회제는 예수회 소속 포르투갈인은 그들의 교회에 포르투갈인만 있기를 원하고 프랑스인은 오직 자기들만 남아 있기를 원한다고 비판하였고,²⁶⁾ 나문조 주교도 교황에게 보낸 보고서에 각 나라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분투하고 있다고 적었다.²⁷⁾ 때문에 중국인 신부나 수사는 교회 중의 조수나 조연에 불과 하였고, 교회 당국은 어쩔 수 없이 중국인 사제를 사용하였지만 결코 그들을 충분히 중시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교회의 권력을 중국인 사제들에게 넘기고자 하지 않았다.²⁸⁾ 오어산 신부는 서양 신부들의 강력한 견제 속에서 첫 번째 중국인 주교가 된 나문조 신부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를 통해 교회와 예수회에 대한 자신의 근심과 불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었다.

.....	
千古萬古修事業,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닦아온 온 이 사업을,
一言遺重委西士.	한 마디의 말로 중임을 서양 선교사에게 맡기셨네.
而今誰不悟死歸,	지금 누구라 죽어 돌아가는 곳을 깨닫지 못하겠나,
夢回情至難忘耳.	꿈속에 나타나시니 지극한 정을 잊기 어려울 뿐이라네. ²⁹⁾

나문조 주교는 선종하기 한 해 전인 1691년, 남경교구주교 지위를 이탈리아 출신 예수회 신부 레오네사(Leonessa, 余宜閣)에게 넘겼다. 그는 레오네사 신부가 한자를 잘 알고, 중국어

25) 『三巴集·聖學詩』, 「佚題」.

26) 조너선 D 스펜스, 이준갑 역, 『강회제』, 이산, 2009, p.148.

27) 方豪, 『中國天主教史人物傳』中冊, 위의 책, p.158.

28) 章文欽, 『吳漁山及華化天學』, 中華書局, 2008, p.160.

29) 『三餘集』, 「哭司教羅先生」.

에도 능할 뿐만 아니라 민심을 잘 살피고, 관청과도 융합하여 선교사와 교우들에게 모두 환영을 받는 인물이라고 하였다. 특히, 레오네사 신부는 이탈리아 출신이었기 때문에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바티칸 선교본부의 명령에 잘 복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³⁰⁾ 그러나 오어산 신부는 포르투갈과 프랑스 출신 신부가 남경의 주교 자리를 두고 벌이는 경쟁을 막기 위한 나문조 주교의 부득의한 결정에 전적으로 동의한 것은 아닌 듯하다.

나문조 주교의 죽음을 애도한 시를 포함한 몇 수의 시를 통해, 당시 서양인 신부들 간의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인 신부와 서양인 신부간의 갈등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오어산 신부는 서양인 선교사들이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기에 급급하고, 전례 문제를 둘러싼 교황과 강희황제와의 갈등이 또 다른 교안을 초래해 중국내 선교가 심대한 타격을 있을까 근심하고 있었다. 오어산 신부는 “교황이 나를 사제로 서품한 뜻은 무엇을 위한 인가? 아마 서양인이 중국에서 혹 순교하는 날이 있으면, 중국에서 선교 사업을 펼칠 사람이 없기 때문이네.”³¹⁾라고 하며 나문조 주교의 뒤를 잇는 중국인 사제로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고자 하였다.

2) 嘉定 東堂의 본당신부

오어산 신부가 본당신부로 부임한 嘉定은 上海의 서북부에 위치한 도시로 “嚮城”, “練川”, “三農之地” 등의 별칭을 가지고 있었다. 남쪽으로는 강소성 太湖에서 발원한 吳淞江이 동쪽으로 흘러 장강과 황포강과 직통하여 상해로 이어져 있는 수륙교통의 중심지였다. 가정에 기독교가 처음 전파된 것은 서광계의 문인이었던 孫元化에 의해서였다. 天啓元年(1621) 북경에서 세례를 받은 손원화는 고향 가정에 거금을 출자하여 東堂이라는 교회와 東樓라는 사제관을 마련하고 가정의 선교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 교회는 천계 8년(1628) 강남지역에서 선교에 종사하던 11명의 서양 신부들이 모여 ‘공자에게 제사를 지내고(祀孔)’, ‘조상에게 제사를 올리는(祭祖)’ 문제와 ‘天’ 과 ‘上帝’ 등 가톨릭 교리를 표현하는 번역어에 관해 토론을 펼쳤던 ‘嘉定會議’가 열렸던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오어산 신부가 부임했을 당시 가정 교회의 신도들은 줄었고 교세는 약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월의 흐름에 따라 교회 건물도 허물어져가고 있었다. 오어산 신부는 「破堂吟」 속에서 이미 황폐해진 교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형용하였다.

何年置此昭事堂,	어느 해에 이 성당을 지었는가?
敬天御筆匾輝煌.	“敬天” 어필 편액만이 휘황하네.
.....	
四壁漏痕如篆草,	사방 벽에는 비가 샌 흔적이 전서나 초서 같고,
屋角風潮半傾倒.	용마루 끝은 바람과 조수의 습기로 반이나 기울었네.
庭飄亂瓦同落葉,	뜰에는 어지럽게 날아 떨어진 기와가 낙엽 같고,

30) 章文欽 箋注, 『吳漁山集箋注』, 위의 책, p.311.

31) 章文欽 箋注, 『吳漁山集箋注』, 「續口鐸日抄」: “教皇命我爲司鐸爲何意? 恐大西人在中國, 或有致命之日, 則中國行教無人.”

樹連蘿薜牆欲壓. 담쟁이덩굴에 휘감긴 나무가 벽을 누를 듯하네.
道房冷暗遍生苔, 수도사의 처소는 차고 어두워 이끼가 두루 끼어있고,
問客難逢爲道來. 도를 위해 찾아오는 방문객은 만나기 어려워라.
.....32)

가정의 東堂 교회에는 강희제가 北京의 南堂에 하사한 “敬天”이라는 글자를 새긴 편액의 복제품이 등그러니 매달려 있고, 성체를 모신 감실과 낡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가 서쪽에 모셔져 있었다. 비가 세는 건물, 바람에 날려 떨어진 기와가 텅굴고 가시나무와 잡초로 뒤덮인 교회의 정원은 폐가와도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오어산 신부가 생활하던 상해의 敬一堂과 비교하면 규모나 시설 등 모든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았고,³³⁾ 세례를 받고자 찾아오는 사람들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오어산이 가정 본당신부로 부임한 강희 30년(1691)에는 浙江巡撫 張鵬翮이 기독교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포고문을 붙이고 탄압을 시작하였고, 강남지역의 선교활동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이에 북경에 거주하던 예수회 신부 페레이라(Thomas Pereira, 徐日昇) 등은 황제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다음해에는 선교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황제의 어명을 이끌어 내었다. 황제의 칙령이 내려오자 가정 교회의 수리를 돕겠다는 마을 사람들이 나타났지만 다들 말뿐이었다. 오어산 본당신부는 빠른 시간 안에 교회를 개수하고자 하는 생각을 접고 교회의 정원을 뒤덮은 잡초와 가시덩굴을 제거하고, 깨어진 기왓장을 치우는 등 자신이 직접 손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였다.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길 잃은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착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모범으로 삼을 것을 서약한 오어산 본당신부의 활동이 시작되었다.

가정에서 주석하는 동안 오어산 신부는 東樓라는 사제관에 처소를 마련하였다. 마카오에서 돌아온 이후 건강이 나빠진 오어산 신부는 가정에 부임했을 때 이미 폐병을 앓고 있었다. 강남지방에 내리는 많은 비와 찌는 듯 한 더위는 늙고 병약한 신부를 힘들게 하였고, 서향인 동루는 늦게 까지 해가 비취 그를 더욱 힘들게 하였다. 오어산 신부는 “東樓에 올라서는 가을이 왔나 잠작 놀랐는데, 동루에서 내려오니 여전히 더위가 한 창이네. 이 작은 누각에서도 더위와 서늘함이 아래위로 달라짐을 느끼네.”³⁴⁾라고 하여 가정의 더위를 묘사하였다.

東樓無計那西陽, 동루의 석양은 어찌 할 도리 없으니,
窗納炎光逼四牆. 창으로 쏟아진 뜨거운 빛이 사방 벽을 다그치네.
未見桐花先得夏, 오동나무 꽃이 피기 전 먼저 여름을 느끼고,
落殘桂子不知涼. 계수나무 꽃이 떨어져도 시원함을 모르네.

32) 章文欽 箋注, 『吳漁山集箋注』, 『詩鈔補遺·破堂吟』.

33) 오어산 신부는 상해에서 보좌사제로 임하는 동안 敬一堂에서 거주하였다. 서광계 집안의 도움으로 완공된 상해의 敬一堂은 300여명의 신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와 사제관, 아름다운 누각과 태호석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觀星臺라고 하는 작은 천문기상대가 마련되어 있었다. 또한 경일당에는 천문관측기 외에도 현미경, 망원경, 환등기, 모래시계, 서양식 해시계 등 서양의 과학의기가 마련되어 있어 교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서양의 과학문화를 소개할 수 있었다. 오어산 신부는 이와 관련한 시들을 남겼다.

34) 『三餘集』, 『樓居半載』: “忽驚秋, 下樓仍盛夏. 感此一樓間, 炎涼分上下.”

吟髭笑撚稀應赤,	시를 읊으며 수염을 매만지니 성긴 수염 붉게 변해 우습고,
月色低遲到亦黃.	달빛은 늦어 하늘에 있어도 그 빛이 흐리네.
風觀露臺有幾在,	바람 피할 높은 누대는 어디에 있는가?
而今且寄此爲鄉.	이제는 이곳을 고향으로 삼으려네. ³⁵⁾

가정 교회의 본당신부가 된 오어산은 자기가 숨 쉬고 있는 이곳이 덥고 습하여 견디기 힘들지만, 허물어져 가는 동당과 사제관 동루를 자신의 고향집으로 삼았다. 오어산 신부는 항상 죽을 때를 생각하며 때에 맞춰 수련하고, 하느님이 자신을 부를 때까지 오랫동안 이곳에서 신도들과 함께 교회 일을 잘 주선하고, 서로 성령을 고무하여 힘쓰게 하는 목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³⁶⁾ 가정 교회의 생활환경과 재정상황은 궁핍하기 그지없었지만 부족한 자신을 통해서라도 교우들이 좀 더 하느님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사제가 되고자 하는 오어산 신부의 노력은 추후의 흔들림도 없었다.

破屋牀頭雪下飛,	무너져 가는 교회 침상머리에 눈이 날리고,
臥看盡日映書帷.	누워 지는 해를 바라보니 빛은 서재의 장막에 비치네.
卻思鄧尉探梅處,	鄧尉山 매화를 찾던 곳을 생각하지만,
酒債詩逋正未歸.	술값으로 진 빛과 詩債를 갚으로 아직 돌아가지 않네. ³⁷⁾

가정 교회는 여름이면 사방 벽에 비가 세고, 가을이면 사방에서 풀벌레 소리가 들리고, 겨울이면 흩날리는 눈발이 침상까지 날아드는 곤궁한 지경이었다. 하지만 교회의 궁핍한 재정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교회와 동루를 수리하는 일은 감히 생각할 수도 없었다. 흐르는 시간과 함께 교회는 황폐해져 갔고, 곤궁한 생활은 10년 넘게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지만 古稀를 맞은 오어산 신부는 그 속에서 자족하며 사제로서의 사명을 다하고자 노력하였다.

甲子重來又十年,	환갑이 지나고 또 십년,
破堂如磬尙空懸.	허물어진 교회는 가난하여 아무것도 없네.
蟲秋四壁鳴還歇,	사방의 벽에서 들려오는 가을 풀벌레 소리는 이어졌다 끊어졌다,
漏雨三間斷復連.	삼간 방에 새는 비는 그쳤다간 다시 줄줄 쏟아지네.
不願人扶迎貴客,	부족을 받아가며 귀한 손을 맞이하길 원하지 않고,
久衰我夢見前賢.	꿈에서 선현들을 뵈는 지도 오래되었네.
牀頭囊橐都消盡,	침상 머리의 주머니는 모두 비었지만,
求舍艱難莫問田.	괴롭고 고생스러움을 면하기 위해 전답을 구하지 않으리라. ³⁸⁾

가정에서 보낸 10년의 세월은 지극히 곤궁한 것이었다. 그러나 오어산 신부는 손원화와 같은 귀인의 도움을 이끌어 내어 교회를 새롭게 수리하기 보다는 곤궁함 속에서 만족과 행복을

35) 章文欽 箋注, 『吳漁山集箋注』, 위의 책, 「詩鈔補遺·東樓」.

36) 章文欽 箋注, 『吳漁山集箋注』, 위의 책, 趙俞, 「續口鐸日抄」: “得與諸子相周旋, 相勉勵, 未有艾也先. ……先生之意, 蓋勉人恒思死候, 及時操修耳.”

37) 『三餘集』, 「見牀頭雪」.

38) 『三巴集』, 「七十自詠」四首之二.

구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자발적 가난은 물질적 결핍이 아니라 물질적 소유욕에서 해방된 자유임을 깨닫게 된 오어산 신부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겠다는 淸貧의 맹세를 몸소 실천하고 있었다.

오어산 신부의 청빈한 삶의 태도는 ‘安貧樂道’하며 隱逸을 추구하는 중국 전통문인의 태도 그 자체였다. “한 소쿠리의 밥과 한 표주박의 물로 누추한 곳에 거처하며 산다면, 사람들은 그 근심을 견디어내지 못하거늘 顏回는 그 즐거움을 바꾸려하지 않는구나.”³⁹⁾하는 안희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었고, “오래 되었구나! 내가 꿈에서 周公을 뵈지 못한 지도 오래 되었구나.”⁴⁰⁾하며 자신의 노쇠하고 쇠약함을 탄식하던 공자의 모습과도 닮아 있었다. 그러나 곤궁한 삶 속에서 오어산 신부가 꿈속에서라도 만나 뵈고자 했던 선현은 더 이상 주공이 아니었다.

3. 『三餘集』의 天學詩

강남지역 선교활동에 종사하며 여가를 이용하여 지은 90여 수의 시를 수록한 『三餘集』을 통해 보면 오어산은 신부로 서품된 이후에도 라틴어와 교리에 대한 학습 의지를 접지 않았고, 목자로서 사목에 대한 열의를 불태우며 바쁜 나날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역사 속의 영웅과 고사들을 인용하여 기독교 교리를 알리고자 노력하였다. 본 장에서는 오어산 신부가 修道生活, 司牧生活, 教導生活을 하는 바쁜(‘忙’) 일상 속에서 지은 천학시들을 修道詩, 司牧詩, 教導詩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1) 修道詩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카오에서 처음 수사생활을 시작한 이후부터 오랫동안 오어산 신부가 가졌던 큰 근심은 라틴어와 서양학문에 대한 학습이었다. 예수회를 창시한 이냐시오는 “먼저 상당한 기간 면밀한 시험을 받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본 회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현명하고 학식과 경건한 생활에 있어서 탁월한 인물임이 드러난 연 후에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에 받아들여질 것이다”⁴¹⁾라고 하며 사제들의 교육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오어산 신부는 상해에 부임한 후 조용히 피정에 들어 악마와 싸울 준비를 하고, 절제와 기도를 통해 성령을 회복하는 여가에 많은 시간을 학업에 투여하였다.

近究西文學,
竟虛東下帷.
殘篇多鼠跡,
新簡亂螢飛.

요즘도 서양의 문자와 학문을 깊이 파고들어 공부하는데,
동쪽 창에 휘장을 내리고 학습하지만 끝내 성과가 없네.
잔편에는 쥐의 발자국들이 가득하고,
새로운 죽간에는 어지럽게 반딧불이가 날아다니는 듯.

39) 『論語』, 「雍也」: “賢哉回也, 一簞食一瓢飲在陋巷, 人不堪其憂, 回也不改其樂. 賢哉回也.”

40) 『論語』, 「述而」: “甚矣, 吾衰也! 久矣, 吾不復夢見周公.”

41) 이냐시오, 한국예수회 역, 『로울라의 성 이냐시오 자서전』, 이냐시오 영성연구소, 2009, p.159.

忻見官除妄,	기쁜 마음으로 관에서 망령됨을 없앴을 보고,
絕無納叩扉.	결코 남자의 사립문을 두드리지 않네.
不求聞薦達,	친거하여 올리는 소리를 구하지 않고,
懶解舊腰韋.	한가로이 낡은 요대를 풀어 해치네. ⁴²⁾

당시 해외 선교에 파견되었던 예수회 신부들은 철저한 교육을 받은 최고의 지성인들이었다. 그들은 먼저 2년간 라틴어와 그리스어 수업을 이수하고 추가로 2년간 인문학적 수련을 더 받아야만 사제가 되기 위한 철학과 신학수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철학을 위해서는 3년의 교과과정, 그리고 신학을 위해서는 모두 4년의 추가 교육과정이 부가되었다. 따라서 사제로 서품을 받기 전 예수회 사제들은 12년의 엄격한 교과과정을 이수해야만 했다.⁴³⁾ 때문에 서양의 사제들이 오어산 등 중국인 신부들이 라틴어로 미사를 집전할 수 있을까 의심하는 것도 일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도 하다. 때문에 중국인 신부들이 라틴어로 미사를 거행하고, 성사를 집행하기에 부족하다고 여기는 서양의 신부들의 의심을 털어내기 위해 오어산 신부는 결코 라틴어 학습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다.

辭家廿載等浮鷗,	집을 떠난 지 20년, 물위에 뜬 기러기와 같은 신세,
窮餓兼無兒女怨.	곤궁하고 굶주린 삶이지만 아이와 부인의 원망은 없네.
所遇故物亦忘名,	옛 물건(雙硯)을 보아도 그 이름을 잊은 듯 대하고,
偶逢冠蓋無煩見.	우연히 관리의 행차를 만나도 번거로울 것이 없네.
閉影潛修素願欲,	행적을 감추고 남몰래 학문을 닦을 수 있기를 평소 바랬지만,
西學日究猶未足.	서양의 학문은 날마다 궁구해도 아직 충분하지 못하네.
何事努力不少壯,	어찌하여 젊을 때 노력하지 않아,
直至暮齡相逼促.	늘그막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꾀박 받네.
臨渴奔泉手掬忙,	갈증이 일면 우물로 달려가 양손으로 물을 뜨기 바쁘고,
飢來炊米帶生熟.	허기가 지면 밥을 안치지만 반은 설익었다네.
寂寞眼遲悔往夢,	적막감에 눈이 흐리니 지난 꿈을 후회하고,
居常知止免遭辱.	평소 분에 맞게 그칠 줄 안다면 치욕을 당하는 일은 면하겠지. ⁴⁴⁾

아내와 사별한 후, 浙江 釣魚臺에서 자식들과 이별하고⁴⁵⁾ 고향을 떠나 종교에 귀의한지 20년이 지났지만 오어산 신부는 여전히 기러기처럼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곤궁한 생활을 견디며 수도자의 길을 걷고 있었다. 知天命이라는 늦은 나이에 예수회에 입회한 후, 초학원에서 라틴어를 배우고 서양의 학문을 학습하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라틴어 문자는 쥐의 발자국 같이 보이기도 하고, 반딧불이가 나는 듯이 보이기도 하여 학습의 장애가 되었다. 또한 서양의 철학과 인문학적 전통, 자연과학 등 배우고 익혀야 할 것들은 너무도 많았다. 늦깎이로 사제의 길에 나섰기에 언제나 시간에 쫓겼던 오어산은 자신에게 ‘청초육가’라는 명예를 가져다 준

42) 『三餘集』, 「次韻雜詩七首」 第三首

43) 김상근, 『동서문화의 교류와 예수회 선교역사』, 한울, 2006, p.125.

44) 『三餘集』, 「六十吟」.

45) 『三巴集』, 「澳中雜詠」 第二十四首: “每歎秋風別釣磯, 兩兒如燕各飛飛. 料應此際俱相憶, 江浙鱸魚先後肥. 是時稚兒在浙杭.”

文房四友도 더 이상 돌아보지 않고 수도생활에 전념했지만,⁴⁶⁾ 부족함은 여전하고 학업에 있어 큰 성취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원망하였다. 오어산 신부는 자신의 분수에 넘치지 않도록 그칠 줄을 알고 만족함을 안다면, 치욕을 당하는 일은 면할 수 있으리라 자위하기도 하였다.

潛修惟耐久, 閉戶等書囚. 고요히 수학함이 오래되고, 문을 닫으면 마치 책에 갇힌 듯하네.
往事難追悔, 秋懷易墮愁. 지난 일은 참회하기 어렵고, 가을날의 감회는 쉬이 애수로 떨어지네.
子胥雖去楚, 王粲只依劉. 오자서는 초나라를 떠났지만, 왕찬은 유표에게 의지하네.
願以常生道, 引人篤信謀. 永生の 길로 사람들을 이끌어 독실한 신도로 만들길 원하네.⁴⁷⁾

라틴어와 교리, 서양학문에 대한 오어산 신부의 학습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져 마치 책방에 갇힌 사람처럼 두문불출하는 생활을 이어갔다. 또한 절을 찾고 승려들과 교왕하며 불교에 깊이 심취했던 지난날을 참회하고, 어느 해 가을 이별한 자식들에 대한 생각도 떨쳐 내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살아왔던 시간들을 회개하였다. 수도자가 된 오어산 신부는 부족하지만 예수를 믿고, 그 가르침을 행하며 신도들을 영원한 삶이 있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고자 서원하였다.

甲子重來又十年,	환갑을 지내고 또 십년,
山中無曆音茫然.	산 중엔 冊曆도 없고 세상 소식은 아득하네.
吾生易老同枯木,	내 생은 쉬이 늙어 고목과 같이 되었는데,
人世虛稱有壽篇.	세간 사람들 헛되이 오래 살기를 빌어주네.
往事興亡休再問,	지난날의 흥망은 다시 묻지 않고,
光陰分寸亦堪憐.	흘러가는 시간 짧은 순간도 아끼리라.
道修壯也猶難進,	도를 닦고자 하는 의지는 굳으나 나아가기 어렵고,
何況衰殘滯練川.	더군다나 늙고 병들어 練川(嘉定)에 머물고 있다네. ⁴⁸⁾

가정의 본당신부로 고회를 맞은 오어산은 사제로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나의 배움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난 세월을 추억하니 헛되이 보낸 것이 안타깝다”고 술회하고, 촌음의 시간도 아껴 순종과 정결, 청빈의 서약을 지키며, 신도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고자 하였다.

2) 司牧詩

오어산은 사제 서품 의식 때 소리 높여 불렀던 “여호와께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

46) 『三巴集』, 「澳中雜詠」第二十八首: “老去誰能補壯時, 工夫日用恐遲遲. 思將舊習先焚硯, 且斷塗鴉並廢詩. 予學道許定矣.”

47) 『三餘集』, 「次韻雜詩七首」第四首.

48) 『三巴集』, 「七十自詠」第一首: “予學道未成, 追前年月, 痛惜虛度. 茲用坡翁“甲子重來又十年”爲首句, 遂成四律, 以爲後惕.”

우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는 성경 시편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강남지역 신도들을 천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훌륭한 목자가 되고자 서원하였고,⁴⁹⁾ 상해와 가정에서 사목활동을 위해 바쁘게 생활하였다.

渡浦去郊牧, 紛紛羊若何. 황포강 건너 교외로 사목을 나가니, 많은 양들은 어떠한가?
肥者能幾群, 瘦者何其多. 살이 오른 것은 몇 무리뿐인데, 여윈 것들은 어찌 그리 많은지!
草衰地遠似牧遲, 풀밭은 쇠하고 땅이 멀어져 목양도 더디어 지지만,
我羊病處惟我知. 나의 양이 병든 곳은 오직 나만이 알 수 있다네.
前引唱歌無倦怠, 앞에서 인도하며 노래를 부르니 권태로움이 없고,
守棧驅狼常不臥. 목책을 지키고 이리를 쫓기 위해 언제나 눕지 않네.
但願長年能健牧, 그저 오래토록 건강하게 목양할 수 있길 바라며,
朝往東南暮西北. 아침엔 동남으로 저녁에는 서북으로 향하네.⁵⁰⁾

오어산 신부는 자신의 욕망을 끊어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서약한 대로 사목이라는 거룩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밤낮을 가리지 않고 浦東과 浦西를 넘나들었다. 하지만 1691년 蘇州에서 벌어진 작은 교안은 강남지역의 선교 사업에 영향을 주어 독실한 믿음을 가진 신도들은 동요시켰고, 사목활동을 더욱 어렵게 했다. 뿐만 아니라 대문을 활짝 열어놓은 상해와 가정의 성당에는 새로 입회하는 신도들이 없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펼칠 일이 없었고, 책벌레들만 배를 불리고 있었다.

何地無達生, 어느 땅이고 생명의 본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 없을까,
道在豈乏士. 도는 있으나 어찌 선비들이 없는가.
空谷應有音, 빈 골짜기에도 웅당 사람 발자국 소리가 있으니,
剥啄頗相似.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비슷하네.
門設居常開, 문은 언제나 열려있지만,
館虛林靜裏. 관은 비었고 숲 속은 조용하네.
典籍古與新, 전적은 古經과 新經인데,
蠹藏飽欲死. 책벌레들만 배가 불러 죽을 지경이네.
我恐白雲深, 흰 구름이 깊어,
山徑迷行止. 산길에서 가고 그침이 잘못될까 두려워하네.
夕陽下苔階, 석양 무렵 이끼 낀 계단을 내려서니,
堂鐘自鳴起. 교회의 종은 절로 울리기 시작하네.⁵¹⁾

가정에서 주석하는 동안 오어산 신부의 생활은 곤궁하였지만 이미 주교와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들 앞에서 목자의 길을 나서기를 서약한 만큼 열성적인 사목활동을 하였다. 가정의 신도 趙倫은 오어산 신부가 강회 35년(1696) 7월 18일 성모승천대축일 미사를 집전하시는 것

49) 오어산 신부의 상해에서 수행한 사목활동에 관해서는 줄고, 『예수회 신부 吳漁山の ‘十年海上’ 사목 활동과 天學詩 고찰 - “글로벌-로컬”의 관점을 중심으로』, 『中國學』, 第59輯, 2017 참고.

50) 『三餘集』, 「牧羊詞」.

51) 『三餘集』, 「聞有學道者來」.

부터 시작해 교회력에 따라 성모성탄축일, 성 프란체스코축일, 성모취결례축일(주님봉헌주일), 성 요셉축일, 성 이냐시오축일, 성모축일, 성 마태오 사도축일, 성 요한 사도축일, 강희 36년 성탄절 미사(11월 13일)까지 주일미사와 특별한 축일미사를 거행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시며, 신도들에게 축복과 번영을 빌어주며, 용서와 자비를 기원하는 사제활동을 자세하게 기록하였다.⁵²⁾

오어산 신부는 사목활동을 위해 교회를 벗어나 신도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아픈 환자나 죽음을 눈앞에 둔 신도들을 찾아 병자성사를 진행하고, 봄과 가을 두 번 때에 맞춰 遊堂을 행하였다. 가톨릭교회는 신자들이 주님 안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성사들로, 특히 병자성사와 성체성사로 도움을 준다. 또한 교회는 누구보다도 주님과 일치 속에 사셨던 성모 마리아께 “저희 죽을 때에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시기를 청하고(성모송), 임종하는 이의 수호자인 요셉 성인에게 선종의 은혜를 전구해 주시기를 청하라고 권고하였다.⁵³⁾ 오어산 신부는 가정의 신자들이 가톨릭 교회가 권고하는 대로 성사의 도움과 기도의 힘으로 죽음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목하였다.

凍骨年年似竹斑,	해마다 뼈마디가 얼어붙어 斑竹같이 변했지만,
土爐薪火且消寒.	질화로의 관솔불로 추위를 녹이네.
豈知暖覺超懷健,	어찌 따뜻함을 느끼는 것이 초회보다 건강함을 알겠는가,
顧病不辭渡浦難.	고병성사를 위해 황포강을 건너는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네. ⁵⁴⁾

오어산 신부는 신도들의 죽음과 건강을 위한 병자성사를 진행하기 위해 분주히 황포강을 넘나들었고, 가정의 시골길을 다녔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도직에 충실함으로써 사제이시며 착한 목자이시고, 스승이시며 만민의 종이 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신도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기를 희망하며, 목자와 양들을 다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노력을 중단하지 않았다.

日薄荒荒道,	해는 지려 하는데 갈 길은 아득히 멀고,
憑誰慰暮程.	누구에게 의지하여 저녁 길을 위안 받을까.
獨行心似火,	홀로이 길을 가니 마음은 조급하고,
四顧路來生.	사망을 둘러봐도 길은 낮서네.
聽鳥啼多異,	새 우는 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기이한가,
逢人喜且驚.	사람을 만나면 기쁘고도 놀라워라.
不愁前去晚,	앞으로 나아감이 늦어짐을 걱정하지 않고,
山月出林明.	산위로 달이 뜨니 숲이 밝아지네. ⁵⁵⁾

서양인 신부들은 사목을 나설 때면 회장이나 중국인 신도들을 대동하여 움직였지만 중국

52) 章文欽 箋注, 『吳漁山集箋注』, 위의 책, 趙命, 「續口鐸日抄」.

53)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2013), 『죽음·심판·지옥·천국, 가톨릭 교회의 四末敎理』,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회, p.20.

54) 『三餘集』, 「渡浦」.

55) 『三餘集』, 「暮程」.

인 신부 오어산은 늦은 밤이라도 단신으로 사목을 나서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저녁 길을 혼자 가다보면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새의 울음소리도 기이하게 들릴 때가 있다. 늦은 밤, 닳은 길에서 사람을 만나는 일이 한편 기쁘기도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는 말을 통해 오어산 신부의 진솔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유당이란 봄과 가을에 신부가 본당 소속의 公所를 찾아 신도들의 신앙과 생활을 점검하고, 판공성사를 집전하는 일이다. 본당신부 오어산은 유당을 나갈 때면 신도들과 동행하였고, 교회에서 진행되는 미사나 성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간혹 비신도들을 만나고, 그들과 교리에 대해 논쟁하기도 하였다.

村行人易倦, 시골길을 가니 사람은 쉬이 피곤해지고,
誤走問尤難. 길을 잘못 들면 묻기는 더욱 힘드네.
溝水通潮落, 도랑의 물은 조수에 따라 밀려나고,
花萼夾路殘. 꽃들은 좁은 길에 떨어졌네.
確聞知之痛, 망아가 한가하니 그 궁핍함을 알겠고,
紛急爲誰單. 길쌈을 급히 하니 누구의 옷을 짓는 걸까.
信道者何處, 신도들은 어디에 있는가,
肩輿衝夜寒. 肩輿를 메고 밤의 한기를 뚫고 가네.⁵⁶⁾

본당신부가 되어 사목구 소속의 신자들에게 병자성사를 진행하고, 장례식을 거행하는 일은 시간을 가리지 않았다. 밤늦게 시골길을 가지만은 상해에서처럼 혼자가 아니었고, 차가운 밤 상여를 멘 사람과 신도회장과 함께 하는 길은 두려움도 없었다. 본당신부 오어산의 사목활동은 환갑을 지내고 또 1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았고, 주임신부로서 사목과 교도의 책무를 한 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甲子重來又十年, 환갑이 지나고 다시 십년,
道行此地少安眠. 이 땅에서 전도를 시작한 후 편히 잠을 잔적이 드물다네.
夕朝奮理遊荒徑, 조석으로 이치를 탐구하고 거친 논두렁길을 따라 유세하며,
俯仰搜觀坐井天. 이리저리 교리를 찾았지만 우물 안 개구리라.
對雪未忘驢背上, 내리는 눈을 마주하면 나귀의 등을 잊지 않았고,
思山常念墨池邊. 언제나 고향의 虞山과 墨井가를 생각하네.
而今啖蔗無多齒, 지금 사탕수수를 씹어 먹지만 이는 다 빠졌고,
自笑粗知老味全. 대충 옛 맛이 그대로임을 알게 되니 절로 웃음이 나네.

3) 教導詩

오어산 신부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신도들의 신앙과 도덕상의 문제에 대하여 교육하고 인도하는 교도직의 책무도 충실히 이행하였다. 가정의 신도들을 교도하기 위해 오어산 본당신부는 강회 35년(1396)년 성 프란체스코축일 자신을 도와 교우들의

56) 『三餘集』, 「村行」.

질서를 유지하며, 다른 교우들을 가르치고 권고하여 천당으로 가는 바른 길로 인도할 프란체스코회를 조직하고, 직접 회장직을 맡았다. 오어산 신부는 이 회에 참가한 가정의 신도 6명에게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지심을 본받고, 자신이 몸으로 모범을 보이고, 날마다 사람들에게 바른 길로 가도록 권하는 것을 본분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부지런히 善法을 행하고 나태함이 없어야 할뿐만 아니라, 더욱 인내하고 편안함과 배부름을 구하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치고,⁵⁷⁾ 술선수범을 보이셨다.

유교와 불교에서 ‘生死’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였던 오어산은 결국 삶과 죽음이 무엇인지라는 큰 의문을 풀기위해 기독교에 귀의하였다.⁵⁸⁾ 때문에 가정에 주석한 이후 신도들에게 행한 중요한 가르침 역시 “언제나 죽을 때를 생각하고, 때에 맞춰 수련할 것(操修)”을 교도하는 것이었다. 신도들에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죽음의 의미와 함께 천국으로 가는 길을 교도하기 위해 오어산 신부는 역사 속에서 秦始皇을 소환하였다.⁵⁹⁾

驪山宮閉管絃間,	아방궁이 무너지니 음악소리도 끊어졌고,
採藥空勞髻自斑.	불로초 구하기 수포로 돌아가니 귀밑머리 절로 희어졌네.
若使求仙身不死,	신선을 만나 불사의 몸이 되었다면,
必然吞併閻蓬還.	반드시 閻苑과 蓬萊를 병탄하고 돌아왔으리. ⁶⁰⁾

삶과 죽음에 대한 동양적인 인식과 기독교적인 인식에는 극명한 차이가 있었다. 기독교에서는 죽음이란 영생으로 가는 방편이며,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과정이라 가르쳤다. 또한 사람의 수명이란 오직 천주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라 하고, 모든 것은 천주가 예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영생불사를 위한 진시황의 노력은 결국 허망한 짓이라 밝히셨다.

東渡無多久, 村村木葉黃. 동쪽으로 건너 온지 오래지 않아, 마을마다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었네.
雨風行未阻, 飢冷坐相忘. 비바람도 내가 가는 것을 막지 못하고, 춥고 배고픔도 마침내 잊었네.
切切分程課, 勞勞轉牧場. 분명하게 과정을 나누고, 바쁘게 목장을 전전하네.
歸將居靜補, 八日默潛藏. 돌아와 장차 피정에 들면, 팔일 간은 묵상수련을 하려네.⁶¹⁾

오어산 신부는 프란체스코회 회원들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먼저 자신이 지은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사제를 통해 하느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의 은총을 받는 고해성사를 하게하고, 앞으로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였다. 또한 피정에 들어 묵상하고 기도하는 수련의 과정에 천학에 있어 꼭 필요하고 긴요한 책들과 유가의 책들 중에 밀천으로 삼을 만한 것들을 모두 찾아내어 좋은 대책을 세울 것을 교도하였다. 특히 서광계가 저술한 불교 배척서인 『釋氏諸安闢』, 李九標가 저술한 『口鐸日抄』, 胡寅(仲明)이 저술한 『崇正辯序』

57) 章文欽 箋注, 『吳漁山集箋注』, 「續口鐸日抄」: “人是會者, 效聖人負十字架多苦, 以身立表, 日惟勸人歸正爲本分. 匪但勤行無倦, 更忍不求安飽.”

58) 줄고, 「吳漁山の 죽음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고찰」, 『해향도시문화교섭학』, 제14호, 2016.04 참고.

59) 『三巴集』, 「澳中雜詠」第十三首: “浪遠三山藥草香, 如何誤得幾君王. 秦時採剩今猶綠, 藥自長生人自亡.”

60) 『三餘集』, 「讀古雜詩十首·秦皇」.

61) 『三餘集』, 「自東渡轉西浦歸途作」.

를 반드시 숙독하고 상세히 체득하여 불시에 있을 변론에 대비해야 한다고 가르쳤다.⁶²⁾

선생님께서 제게 하문하셨다. “어떤 사람이 말하길 나는 부처를 믿지 않고, 천주 또한 믿지 않습니다.” 그대는 이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나는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대저 사람들은 반드시 귀결점이 있으니 천당이 아닌즉 지옥이다. 그 중간의 공한처란 없다. 그대가 부처를 믿지 않는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어찌 천주가 계신데 믿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선생님께서 제게 하문하셨다.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말하길 나는 부처도 존경하고, 천주 또한 존경합니다.” 그대는 이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나는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천하만물 가운데 오직 사람이 귀한 것이며,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되는 것이다. 그릇됨과 올바름을 명확히 할 수 없다면 어찌 사람이라 하겠는가. 그릇됨과 바름은 마치 물과 불이 서로 융합할 수 없는 바이며, 그 세 역시 병립할 수 없는 것이다.”⁶³⁾

서양에서 전래된 기독교는 상대적으로 종교적 색채가 얇은 유교와 협력하였지만, 기독교와 유사한 종교적 체계를 갖춘 불교와 도교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 불교의 환생윤회설에 따르면 과거의 업보는 여러 생에 걸쳐서라도 철저히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청산되어야 한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복음에 따르면, 하느님만이 죄인을 너그럽게 용서하심으로써 새 출발의 기회를 주신다고 한다.⁶⁴⁾ 오어산은 신부가 되기 전 불교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승려들과 긴밀한 교류를 하였다. 하지만 예수회에 입회한 이후에는 지난날의 잘못을 참회하고, 그리스도의 救贖과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에 온 희망을 두었다.

捨身三後獨齋宮,	세 번이나 출가 소동을 벌인 후에도 홀로 재실에 머물며,
暗把邊朝事托空.	어리석게도 변경과 조정의 중대사를 空門에 맡겼네.
不道臺城無佛教,	도리에 어긋나니 왕국은 부처의 구원을 얻지 못했고,
仍留餓骨掩塵中.	굶어죽은 유골을 티끌 속에 두었네.

오어산 신부는 독신한 불교신자였던 梁武帝 蕭衍이 同泰寺를 짓고 세 번이나 출가했다 환속하는 소동을 벌인 후, 왕궁에서 생활하면서도 정사를 돌보지 않고 고행승처럼 아침저녁으로 사원에 가서 예불을 올렸지만 결국은 자신의 몸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나라를 멸망케 하는 국난을 자초한 고사를 통해 불교의 “因果應報”설을 간접적으로 비판하였다. 또한 오어산 신부는 당나라 則天武后가 불교를 맹신한 나머지 호화로운 사원을 건설하기 위해 백성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지게 했을 때 사원을 철거하고 척불정책을 펼칠 것을 주장했던 狄仁傑과 傅奕의 이야기를 통해 신도들을 계도하고자 하였다.

62) 章文欽 箋注,『吳漁山集箋注』,『續口鐸日抄』: “但天學緊要諸書, 及儒書可資用者, 俱宜講究. 如『關妄』、『日抄』, 與夫胡致堂『崇正辯序』, 務須熟讀詳玩, 以備不時之辨難.”

63) 章文欽 箋注,『吳漁山集箋注』,『續口鐸日抄』: “先生問: ‘有人曰: 我不信佛, 亦不信天主. 爾何以對之?’ 余無以應. 先生曰: ‘凡人必有着落, 不天堂即地獄, 無中間空閒處可着汝落也. 汝不信佛, 善矣. 豈有天主而可不信乎?’ 先生問: ‘有人向爾言: 我佛亦敬, 天主亦敬. 汝何以對之?’ 余無以應. 先生曰: ‘天下萬物, 惟人爲貴. 人爲萬物之靈, 邪正不明, 何以爲人? 邪正如水火不相入, 勢不並立也.’”

64)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2013), 『죽음·심판·지옥·천국, 가톨릭 교회의 四末敎理』,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p.10.

江東來撫斗移南,	(적인걸이) 강동의 순무가 되니 북두칠성이 남으로 옮겨왔고,
燬盡淫祠化作嵐.	淫祠를 모두 불태우니 구름과 연기가 피어올랐네.
猶恨梁公非傅奕,	오직 한스러운 것은 적인걸이 傅奕처럼,
不教尼女配僧男.	비구니를 중에게 시집보내라 교령을 내리지 않은 일이라네.

『舊唐書』에 따르면 吳와 楚 지역의 풍속에는 내력이 올바르지 않은 귀신을 모셔 놓은 淫祠가 많았다고 한다. 강동의 순무로 부임한 적인걸은 그 중 1,700여개를 불태우고 오직 夏禹, 吳太伯, 季札, 伍員을 모신 4곳의 사원만 남겼다.⁶⁵⁾ 유일신을 섬기는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민간에 만연한 토속신앙을 부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오어산 신부는 음사를 불태운 적인걸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긍정한 것이다. 또한 승려가 많고 사원이 사치를 일삼으면 국가의 재산이 크게 축이 나고, 군민을 현혹하여 부역을 피하여 도망하게 하면 정치를 훼손하고 나라를 망하게 한다고 주장하며 승려와 비구니를 환속시킨 傅奕의 고사를 빌어 불교는 輪回功德을 이야기하여 어리석은 백성을 속이고 금전을 편취한다고 교도하였다.

명나라 후반부터 시작해 민간에서는 관우에 대한 숭배가 일반화 되고 있었다. 順治 9年(1652)에는 關羽를 “忠義神武關聖大帝”에 봉하고, 국가의 祭典에서 공자와 동렬인 中祀에 두고 제사를 지내는 등⁶⁶⁾ 관우에 대한 추앙이 극에 달했다. 오어산은 “관우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묻는 프란체스코회 회원에게 “이 사람은 분명 漢나라의 제후였으나, 부질없이 다른 사람에게 기탁하였으니 성인이라기에 부족하다.”⁶⁷⁾고 교도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다음의 시에서도 확인된다.

三國誇分天下雄,	삼국이 자만하여 천하를 나누고 영웅을 다룰 때도,
丹心有漢獨稱公.	한에 대한 충심을 품은 이는 오직 공이라 할 것이네.
如何拋卻獻朝業,	어떻게 獻帝의 조업을 버려두고,
別結桃園入蜀中?	따로 도원결의를 맺고 촉 땅으로 들었는가. ⁶⁸⁾

오어산 신부가 「讀古雜詩」 十首를 통해 秦始皇과 梁武帝, 狄仁傑, 關羽뿐만 아니라 燕昭王, 項羽, 范蠡, 楊王孫 등을 소환한 것은 단순히 그들의 영웅적인 일생을 찬양하기 위함이 아니라 중국인 신도들이 익숙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죽음과 유일신, 성인 등에 관한 가톨릭 교리를 교도하기 위함이었다.

65) 『舊唐書』卷89「狄仁傑傳」: “吳楚之俗多淫祠, 仁傑奏燬一千七百所, 唯留夏禹, 吳太伯, 季札, 伍員四祠.”

66) 章文欽, 『吳漁山及華化天學』, 위의 책, p.247.

67) 章文欽 箋注, 『吳漁山集箋注』, 「續口鐸日抄」: “先生曰: 是人也, 明明以漢家鼎祚, 白售與人, 未足云聖也.”

68) 『三餘集』, 「讀古雜詩十首·關壯繆」.

4. 나오는 말

오어산 연구의 시조라 할 수 있는 진원 선생은 오어산 신부의 30년 선교 생애를 ‘窮’과 ‘忙’으로 개괄하였다. 본 연구자는 거기에 ‘愁’를 더하여 오어산 신부의 삶과 고민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본문에서는 『三餘集』에 수록된 시를 통해 오어산 신부가 상해에서 보좌신부로 재임하면서 느꼈던 ‘愁’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가정에서 본당신부로 활동하면서 느꼈던 ‘窮’의 내용과 당시 교회의 상황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오어산 신부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개인적인 근심은 라틴어를 비롯한 교리와 서양학문에 대한 학습이었고, 교회적인 근심은 당시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기에 급급한 포르투갈과 프랑스출신 서양 선교사들이 조성하는 불협화음과 典禮問題를 둘러싼 교황과 강희황제와의 갈등이었음을 확인하였다. 오어산 신부는 교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갈등이 또 다른 교안을 초래해 중국 내 선교가 심대한 타격을 있을까 근심하고 있었던 것이다. 천학시에 대한 기존 연구 성과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 관련자들의 연구가 많았기 때문에 오어산 신부가 가졌던 서양 선교사와의 갈등, 중국인 신부들이 가졌던 교회와 예수회에 대한 불만과 같은 문제는 이제껏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하지만 동서양 문명교류의 최전선에 있었던 중국인 신부나 천주교를 믿은 지식인들이 서양인 선교사에게 가졌던 불편함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가정에서 본당신부로 활동하면서 오어산 신부가 느꼈던 ‘窮’의 구체적인 실체는 궁핍한 교회의 재정 상태와 열악한 교회환경이었다. 궁핍한 교회의 재정으로 인해 교회와 사제관을 수리하는 일은 감히 생각할 수도 없었다. 여름이면 사방 벽에 비가 세고, 가을이면 사방에서 풀벌레 소리가 들리고, 겨울이면 흩날리는 눈발이 침상까지 날아드는 곤궁한 지경은 결국 10년 넘게 개선되지 않았다. 하지만 古稀를 맞은 오어산 본당신부는 사제로서의 사명을 다하고자 언제나 노력하였다. 궁벽한 환경 속에서도 淸貧의 맹세를 지켜가는 오어산 신부의 모습은 “安貧樂道”와 隱逸을 숭상하던 전통 지식인의 모습과 같은 듯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三餘集』에 수록된 시를 통해 보면 오어산은 라틴어와 교리에 대한 학습 의지를 접지 않았고, 목자로서 사목에 대한 열의를 불태우며 바쁜 나날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역사 속의 영웅과 고사들을 인용하여 기독교 교리를 알리고자 노력하였다. 본문에서는 오어산 신부의 천학시를 修道詩, 司牧詩, 教導詩로 분류하고, 이상의 내용들을 고찰하였다.

修道詩를 통해 중국인 신부들이 라틴어로 미사를 거행하고, 성사를 집행하기에 부족하다고 여기는 서양의 신부들의 의심을 털어내기 위해 라틴어를 학습하고 서양의 철학과 인문학적 전통을 학습하는 오어산 신부의 노력을 살펴보았다. 司牧詩를 통해서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는 성경 시편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강남지역 신도들을 천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훌륭한 목자가 되고자 노력하는 오어산 신부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教導詩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이시며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신도들의 신앙과 도덕상의 문제에 대하여 교육하고 인도하는 교도직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한 오어산 신부의 노력을 살펴보았다. 특히 오어산

신부가 『讀古雜詩』 十首를 통해 秦始皇과 梁武帝, 狄仁傑, 關羽 등을 소재로 시를 지은 것은 단순히 그들의 영웅적인 일생을 찬양하기 위함이 아니라 중국인 신도들이 익숙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가톨릭의 교리를 설명하기 위함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희 21년(1682) 知天命의 나이로 마카오를 찾아 예수회에 입회한 이후부터 선종에 이르기까지 오어산 신부가 남긴 시는 대부분 『三巴集』과 『三餘集』에 수록되어 있다. 『三巴集』에 수록된 천학시는 오어산 신부가 예수회 수사가 된 후 기독교의 교리를 학습하고 이해하며, 예수와 성모, 사도와 성자들의 삶을 찬양하고, 예수회 성현들에 대한 존송을 담은 시들이 주를 이루었다. 오어산 신부가 신도들에게 이야기한 “作天學詩最難, 比不得他詩”라는 협의의 천학시라 할 것이다. 이에 반해 『三餘集』에 수록된 천학시는 이미 교리와 교회사에 대한 학습과 수용의 단계를 넘어 사제로서의 삶과 고민, 포부 등을 담고 있고, 중국의 전통문화와 서양의 기독교 문화를 융합하고, 체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연구수행을 통해 오어산은 천학시를 지음에 있어서 중국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천주교의 교리, 전례, 문화 내용과 중국전통문화를 결합하여 유교나 불교, 도교의 개념과 용어를 차용하여 표현하는 格義의 표현법을 자주 활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기독교적인 문화 토대위에서 등장하는 사건과 인물들을 한자어로 표현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작업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정형화된 근체시 속에 녹여내는 것은 더욱 지난한 작업이었음을 확인하였다. 때문에 이상의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천학시를 창작한 오어산을 예수회에서 ‘中國讀書修士’, ‘精于中國文學’이라 칭한 것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천학시’ 자체가 이미 특정한 종교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표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기에는 일정한 한계성이 존재한다. 또한 전례문제를 둘러싼 강회제와 교황간의 갈등으로 인해 결국 금교령이 내려지고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팽배해지면서 오어산 이후 천학시의 창작은 지속되지 못했다. 하지만 중국고전시가의 형식을 이용하여 서양의 종교와 문화를 담아내었던 천학시의 출현은 분명 중국 고전문학의 내용을 풍부히 하는 중요한 사건임에 틀림없다. 뿐만 아니라 오어산의 시 속에 포함된 많은 내용들은 17세기 동서양의 문화교류, 종교교류, 선교사를 연구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료로서의 가치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論語』

『詩經』

『舊唐書』

吳漁山 撰, 章文欽 箋注, 『吳漁山集箋注』, 中華書局, 2007.

周康燮 主編, 『吳漁山(歷)研究論集』, 崇文書店, 1971.

章文欽, 『吳漁山及其華化天學』, 中華書局, 2008.

方 豪, 『中國天主教史人物傳』, 中華書局, 1988.

- _____, 『中國天主教人物傳』, 光啟社, 2003.
- 費賴之, 馮承鈞 譯, 『在華耶穌會士列傳及書目』(上冊), 1995.
- 孫金富 主編, 『上海宗教志』,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2001.
- 栢應理, 徐允希 譯注, 『許母徐太夫人甘第大事略』, 天主教上海教區光啟社, 2003.
- 張忠民, 『上海: 從開發走向開放(1368-1842)』,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2016.
- Gandar, 『Origines de Pou-tong』. Augustinus M. Colombel, S.J. 周士良 譯(2008), 『江南傳教史』上篇 第一冊, 天主教上海教區光啟社, 2008.
- Liam Mathew Brockey(栢里安), 陳玉芳 譯, 『東遊記(Journey to the East): 耶穌會在華傳教史, 1579-1724』, 澳門大學, 2014.
- 徐曉鴻, 「吳歷及其“天學詩”」, 『天風』, 2010.
- 김상근, 『동서문화의 교류와 예수회 선교역사』, 한들, 2006.
- 김승혜·석재문·진 토마스, 『그리스도교와 불교의 수도생활』, 바오로딸, 2001.
- 곽철환, 『시공 불교사전』, 시공사, 2003.
- 안드레 군드 프랑크, 이희재 역, 『리오리엔트』, 2003.
- 데이비드 E. 먼첼로, 이향만 외 옮김, 『진기한 나라, 중국 - 예수회 적응주의와 중국학의 기원』, 나남, 2009.
- 김혜경, 『예수회의 적응주의 선교』, 서강대학교출판부, 2012.
- 정수일 편저, 『실크로드 사진』, 창비, 2013.
- 양광선·이류사·남희인 저, 안경덕·김상근·하경심 역, 『부득이 - 17세기 중국의 반기독교 논쟁』, 일조각, 2013.
- 이냐시오, 한국예수회 역, 『로울라의 성 이냐시오 자서전』, 이냐시오 영성연구소, 2009.
- 조너선 D 스펜스, 이준갑 역, 『강희제』, 이산, 2009.
- 조지 둔, 문성자·이기면 역, 『거인의 시대: 명 말 중국 예수회 이야기』, 지식을만드는지식, 2016.
-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 『죽음·심판·지옥·천국, 가톨릭 교회의 四末敎理』,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3.
- 최낙민, 「예수회 신부 吳漁山の『三巴集·澳中雜詠』을 통해 본 해항도시 마카오」, 『中國學』, 第43輯, 2012.
- _____, 「吳漁山の『三巴集』에 나타난 天學詩研究」, 『中國學』, 第54輯, 2016.
- _____, 「吳漁山の 죽음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고찰」, 『해항도시문화교섭학』, 제14호, 2016.
- _____, 「예수회 신부 吳漁山の『十年海上』 사목활동과 天學詩 고찰 - “글로벌-로컬”의 관점을 중심으로」, 『中國學』, 第59輯, 2017.
- Albrow, Martin and Elizabeth King (eds.), *Globalization, Knowledge and Society*, London: Sage, 1990.
- Jonathan Chaves, *Singing of the Source : NATURE AND GOD IN THE POETRY OF THE CHINESE PAINTER WU LI*, University of Hawaii, 1993.
- Thomas Banchoff and José Casanova, *The Jesuits and Globalization: Historical Legacies and Contemporary Challenges*,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16.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오어산, 가정, 상해, 수도시, 사목시, 사목시, 천학시		
	영문	Wu Yu-shan, Jiading, Shanghai, Priest Poem, Pastoral Ministry Poem, Magisterium Poems, Tianxueshi (Catholicism Poem)		
<div>A Study of Jesuit priest Wu Yushan's Catholicism Poetry through <i>Sanyuji</i></div> <div>Choi, Nack-Min</div> <p>This paper attempts to review the Jesuit priest Wu Yushan's missionary work in Shanghai and Jiading through <i>Sanyuji</i>『三餘集』. On August 1, 1688, Wu Yushan became a Jesuit priest and engaged in mission work in the Jiangnam area for about 30 years until death. His mission activities were largely divided into the first period when he lived as a parochial vicar in Shanghai and the second period when he served as a pastor in Jiading. In <i>Sanyuji</i> he improvise contain poems describing the Wu Yushan', missionary work as the pastor, religious, magisterium in Jiangnan .</p> <p>Prof. Chen Yuan summarized the missionary life of priest Wu Yushan as 'Poverty(窮)' and 'Busy(忙)'. The researcher at Prof. Chengaki's point added 'Worry(愁)' to the life and mental agony of priest Wu Yushan. Through the poems contained in the book of poetry <i>Sanyuji</i>, one can see that Wu Yushan was no shortage of will to learn Latin and Christine doctrine, and he spent busy days burning enthusiasm for pastoral care as a shepherd, and citing heroes and their deaths in Chinese history, to teach the christine doctrine. In the paper, the divine poems left by the Jesuit priest Wu Yushan into the pastoral ministry poems, the religious poems, the magisterium poems to analyse his poem in <i>Sanyuji</i>.</p>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최낙민 / 崔洛民 / Choi, Nack-Min		
	소 속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Em@il	qiushui@kmou.ac.kr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8년 03월 02일	심 사 일	2018년 03월 08일
	수 정 일	2018년 03월 18일	게재확정일	2018년 03월 23일